

고대의료원지부 평가대의원대회 보고



우리지부는 지난 16일부터 17일까지 춘천의 도래샘리조트에서 평가대의원대회(이하 대대)를 진행했다. 홍세나 지부장은 대회를 통해 “처음 대의원들을 만나 사업계획을 논의하던 때가 엇그제 같은데 벌써 1년이란 시간이 흘렀다. 대의원들께서 자신의 역할을 200%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린다. 하지만 오늘이 마지막은 아니다. 앞으로도 고대의료원지부를 위해 많은 고민과 활동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뒤, 보고사항과 논의안을 진행했다.

대의원대회가 끝난 뒤 ▲ 대의원 역할 및 부서와 노조 간의 소통 평가 ▲ 노동조합에 바란다. ▲ 간호부 조직을 위한 방법에 대해 분임토론을 진행했다. 모든 일정을 마친 뒤 저녁식사 자리에서는 활동 소감을 밝히는 시간을 가졌으며 “대의원이 돼서야 노조가 무엇을 하는지 알았다”, “일정이 너무 많아 힘들었지만 하면 할수록 뿌듯했다.”고 말했다.

■ 보고사항

1. 활동보고(3월~11월 노동조합 3개 병원 활동 및 연대 활동 보고)
2. 2/4분기 회계감사 보고(송은옥 회계감사 보고)

■ 논의안건

1. 2017년 고대의료원지부 사업평가의 건 - 총괄평가 및 사업별 평가 진행했으며 수정없이 승인함.
의견 제출 - 조직부 : 문화체험과 관련하여 다양한 조합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업을 개발, 병원 별 행사 확대.
- 선전부 : 노조활동 홍보시, 조합원 뿐만 아닌 병원 직원들도 참가하는 행사에 참가해 홍보하면 좋겠다.
2. 2017년 고대의료원지부 임금교섭 평가의 건 - 시기 및 조직 평가, 활동평가를 진행했으며 수정 없이 승인함.
의견제출 - 타결 이후 실무교섭 진행 경과 상황에 대해 공유되었으면 좋겠다.
3. 2017년 예비비 사용에 관한 건 - 유지현 위원장 활동 중 암 발병으로 인한 치료비 후원으로 지난 추석 바자회 수익금 을 예비비로 편성하고 15,000,000원을 지원하기로 함.
의견제출 - 조합원 중에도 치료비등 사정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경우에도 논의할 수 있도록 하자.
4. 을지병원지부 파업참가자 무노무임 해결을 위한 투쟁기금 대여에 관한 건 - 대여금액에 대해서는 조합비 중 5천만원까지 대여하기로 하되 타 지부 대여금액과의 형평성에 맞게 대여하기로 함. 대여시기 및 상환시기는 집행부 논의에 따라 결정하기로 함.

보건의료노조, 스무살의 열정과 20년의 실력으로

우리의 꿈은 현실이 됩니다

1. 보건의료노조 임원 (위원장 · 수석부위원장 · 사무처장)

2.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선거

11/21(화)~23(목) 전 조합원 직접 투표로 선출

■ 보건의료노조 임원 후보



박노봉(수석부위원장 후보) - 나순자(위원장 후보) - 한미정(사무처장 후보)

보건의료노조 임원 후보로는 나순자-박노봉-한미정 선거운동본부 1팀만이 등록하여 단독 선거로 치러질 예정이다.

나순자 위원장 후보는 1989년 이화의료원 간호사로 입사하여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2009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보건의료노조 7대 미조직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노봉 수석부위원장 후보는 1986년 부평세림병원 산업안전기사로 입사해 인천지역본부 본부장을 거쳐 2015년부터 현재까지 부위원장을 역임했다. 한미정 사무처장 후보는 1993년 한양대의료원 간호사로 입사했으며, 서울지역본부장을 거쳐 2015년부터 현재까지 사무처장으로 활동 했다.

공약으로는 ▲현장 인력문제 해결, 좋은 일자리 정책의 완성 ▲대정부교섭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도 ▲산별교섭 선도 ▲현장의 감수성에 기초한 소통의 리더십과 신뢰 ▲ 정책교육 역량 강화와 10만 조합원 시대 마련 ▲ 보건의료 대개혁과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연대 활동이다.

■ 보건의료노조 서울지역본부 본부장 후보



고대의료원지부가 소속되어있는 서울지역본부의 본부장 선거가 임원 선거와 동시에 치러진다. 본부장 후보는 1팀만이 등록하여 단독선거로 진행된다.

후보로 등록한 최희선 후보는 1995년 가톨릭대학교 성모병원 간호사로 입사해 2002년 217일 파업투쟁으로 해고되었다가 2004년에 복직되었다. 2013년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지부장을 시작하여 현재까지 활동 중에 있다.

주요공약으로는 ▲ 시간외 근무시간 인정 ▲ 교대제 근무 전면 개편, 밤 근무 노동강도 감소 ▲ 감정노동 정책 마련 ▲ 올바른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시스템 마련 ▲ 현장간부 역량 강화 ▲ 의료제도, 인력정책, 노동정책 수립과정에 현장에 직접 제안 등이다.

우리 손으로! 우리 집행부를! 꼭 투표합시다!

11월 21일(화) ~ 23일(목)